

# 정답 및 채점기준표 [B형]

시험회차 : 제28회 한국어능력시험

영역 : 고급 표현(쓰기)

문항번호	정답 (객관식)	배점	문항번호	정답 (객관식)	배점	
31	④	4	36	③	4	
32	①	4	37	③	4	
33	①	4	38	④	4	
34	①	4	39	④	4	
35	②	4	40	②	4	
답지 빈도	답지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수	3	2	2	3	10

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주관식)	배점
41	<p>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다</p> <p>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다</p> <p>1) 연결 표현이 어색한 경우 -2점</p> <p>2) 의미 전달에 지장이 큰 철자, 맞춤법 오류, 1-2점 감점</p> <p>3) 제시된 조건(순서대로, 모두, 40-60자, 한 문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점</p> <p>4) 제시된 표현의 의미적 연결이 어색한 경우 -2점</p> <p>5) 제시된 주제를 벗어난 경우 -2점</p>	10
42	<p>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p> <p>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p> <p>1) 연결 표현이 어색한 경우 -2점</p> <p>2) 의미적 연결이 어색한 경우 -2점</p> <p>3) 의미 전달에 지장이 큰 철자, 맞춤법 오류 1-2점 감점</p>	10
43	<p>접촉하지 않는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도</p> <p>접촉하지만 않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p> <p>1) 연결 표현이 어색한 경우 -2점</p> <p>2) 의미적 연결이 어색한 경우 -2점</p> <p>3) 의미 전달에 지장이 큰 철자, 맞춤법 오류 1-2점 감점</p>	10
44	<p>작문형 문항의 채점 기준에 따름.</p> <p>우리는 대부분 거짓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짓말도 존재한다. 상대를 속여 피해를</p>	30

주거나 자신이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나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이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선의의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대가 진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상대를 배려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진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따뜻한 거짓말이 진실보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이를 테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자신의 병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외에도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기 위해 하는 거짓말 역시 상대방에게 힘을 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실을 원할 수도 있다. 상대가 진실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전한다면 그것은 단지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위한다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의를 가진다는 이유로 모든 거짓말이 용인된다면 배려라는 이름 아래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말이 난무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